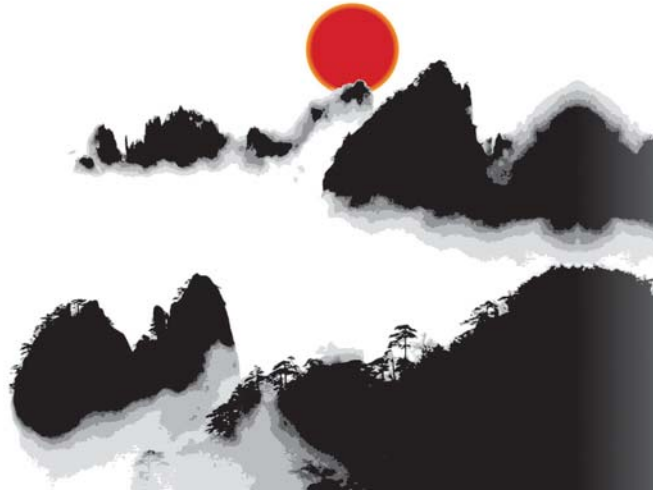




회원을 위하여 거듭 태어나는 협회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2008년은 다가올 무한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다양한 변화에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힘을 기르는데 주력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우리협회가 직면한 많은 시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임원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님과 각급 협의회 관계자, 도서관계 인사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력으로 대과(大過)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와 성공적 개최와 이를 전후해 「도서관법」이 개정·시행됨은 물론,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되고, 위원회의 실무기구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설치

된 일은 우리 도서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쓰며 발전적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전 도서관인들의 강렬한 열망과 바람의 시선 속에서 위원회와 기획단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지역대표도서관, 도서관협력체제 외에도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도서관의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권말기에 여유롭지 못한 시간적 한계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서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와 기획단의 활동은 우리 도서관인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우리협회 역시 위원회와 기획단의 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고 그로 인해 우리 도서관계가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새

로운 정권이 들어섬에 있어 정부 기관의 존폐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많습디다만, 공적 목적을 위한 우리 도서관계의 노력과 마음을 모은다면 넘어서지 못할 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안)」, 경기도 신설도서관의 평생학습관으로의 명칭변경 문제 등이 연말에 대두되었으나, 우리 도서관계의 노력과 바람과는 다른 방향의 결론을 보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회원여러분!

모든 일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협회에 대한 도서관인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어린 시선을 받게 된 이후, 우리협회가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 단체여야 한다는 저의 평소 소신을 취임에 즈음하여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회원을 위한 조직, 회원을 위하는 단체로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회원을 섬기는 사업을 수행하는 회원지원부와 건전한 재정확보에 필요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진흥부로 우리협회 사무국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이제 잘 정비된 새로운 조직의 사무국은 우선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회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회원들께 봉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익협력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위원

회”, “회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할 일을 진중하게 논의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 기울이며,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구협의회·관종별 부회(협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속적인 자기 성장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협의회 식구와 함께 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08년을 맞이하는 우리협회는 회원들 곁에서 강군(強軍)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임을 다시금 약속드리며,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회원도서관과 도서관인 여러분!

희망과 발전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 태 승
한국도서관협회장